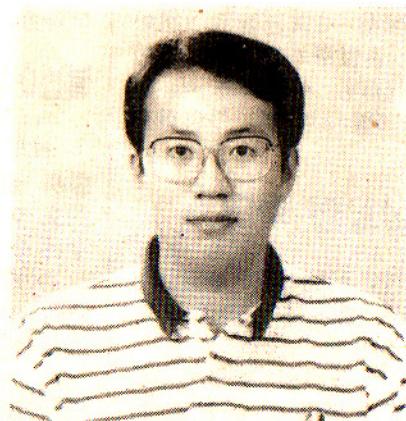


經濟人手帖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김영수 (경제학박사)



캐쉬 박치기를 해라(?)

매일 매일 '돈'을 꾸어다 데느라 혁혁 데면서, 매일 매일 '돈'이 없어서 찔찔 매면서, 바로 그 '현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힘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私債'업을 권하는 것인가? 라면서, 필자를 다그친다. 대화가 그러한 '무식하고 野蠻的'인 지경에 이르면 그저 잘 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없지만, '현금동원 능력 = 사채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위에서 말한 현금의 위력을 이용을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바가지만 바가지로 쓰며 지내기 마련이다. 내가 보기에는 '현금동원능력'은 '私債'가 아니라, '準備'을 의미한다. 특히, 전세계의 선진금융시장과 직결되어있는 이 카나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카나다나 미국같은 금융 선진국들의 속사정을 보면, 언제나, '돈을 쓸 사람'보다, '투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금융선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즉, 한국은 기업가 수백 명이 한 사람의 사채업자에게 사정사정하며 해결복결하는 실정인데 비하여, 카나다와 같은 선진 금융권에서는, 여려명의 투자가가 '제대로된 기업가'에

게 매달려, 제발 내 돈 좀 키워달라며 애걸 복걸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무어라고? 나는 사업을 하지만, 나에게 돈놓겠다는 사채업자는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김 모의 주장은 처음부터 사실 무근한 완전 허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분들은 필자가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기업가'가 아닐 뿐이다.

필자는 확신한다. "현금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진 금융 시장에서의 현금동원의 규모와 조건은準備과정에서 결정된다"라고. 즉, 선진 금융시장권 속에 있는 카나다같은 곳에서는 확실하고 자세한 Business Plan을 가지고, 확실한 Target를 설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금을 동원할려면

설마던지 좋은 조건으로 돈을 동원할 수가 있다. 즉, 선진금융권에서의 금융 동원은 '담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Feasibility로 결정된다. 즉, '북미에서의 현금력을 재산가의 것이 아니라, 着實한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다. 확실한 Feasibility를 보여주면, 금융비용을 20%이상 다른 시킬 수 있는 것을 왕왕 보아온다. (필자는 資源開發회사들에다가 그러한 서비스를 하여주고 돈을 받고 있기도 한다.) 필자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금융비용에서 20% 다운시키고, 캐쉬박치기하여 25% 가격다운시키고, 다른 특혜받고... 이러고도 망하면, 그 사람은 망해싸다고 생각이든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금력'의 확보, 그를 위한 금융의 사전동원, 그를 위한 철저한 Feasibility Study... 이것이, 우리 한국인이 北美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행동규범이 아닌가 싶다. 현금력은 '재산가의 것이 아니라, 着實家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한다. 미리미리, 진즉진즉, 미리미리, 진즉진즉...

"현금력"무시 습관과 관련하여, 또 하나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하는 한국인의 憎鄰이기도 하다. 바로 "캐쉬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은 캐쉬가 조금 있으면 좀이 쑤시기 때문에 엉덩이가 들썩거리 그것을 가지고 오래 진득이 있지를 못한다. 캐쉬파워의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당연한 결과 인지도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국인들의 경제행위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가, "캐쉬를 가지고 있지를 못한다"이다. 그런데 이 캐쉬가 자기 것이었을 경우에는 '자돈 지가 쓰빼니까' 그래도 문제가 덜 심각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남의 캐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남의 캐쉬"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지극히 슬픈 일이고, 가슴아픈 일이지만,

한국인에게, 캐쉬를 약간 말기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은행에만 넣어두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2-3년 후에 다시 가서, 돈을 도로 달라고하면, 몇이나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무슨 경로를 통해서 얻었던가, 그것이 누구의 어떤 돈이던가 간에, 한국사람은 "캐쉬"를 쥐고 있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캐쉬"가 있다고 하면, 온 세상의 급한 사정이 다 이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신 친구가 수십명이 생기고, 꼭 되는 사업인데, 돈이 아주 조금 모자라는 친척이 수십명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분들일 수록, '나는 원래 어려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 사정이 워낙 사정이다 보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돈이 어떤 돈인데, 그냥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잘 굴려서 크게 불려 주겠다'고 호통을 치고 나서는 무허가 재산관리가도 줄을 서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평생에 딱 한(?)번하는 청을 거절하면, 평생 '원수'가 된다. 아니, 적어도 다음 달 다시 돈을 꺼려 올 때까지는 그렇다. 얼마 전에 김득구라고 한국의 권투 선수 한 사람이 미국에서 상대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아 결국은 죽게 되고 (필자는 그 뒤로 권투를 보지 않는다), 흘어머니에 유복자까지 남게 되자, 각계에서 溫情이 2-3억원 정도 담지한 적이 있었다. 즉, "캐쉬"가 모인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말한 예의 그 버릇이 여기서라고 발동하지 않을리 있겠는가? 우선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누가 얼마를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한창 시끄럽게 추하게 싸운 뒤에는, 온 친척이 다 달려 들어, 그 誠金을 빌려가고, 투자하여 준다고 가져가고, 뜯어가고, 빨아가고, 채가고, 타가고, 훔쳐가고, 얻어가고, 물려가고, 실어가고... 순식간에 한푼도 남지 않자, 그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위대한 우리 득구 碑세울돈'이라도 조금 달라고 사정 사정하였는데, 그 돈도 타내지를 못하자, 목을 매어 자살을 한 적이 있는 것을 신문을 자세히 읽는 분은 기억하실

것이다. "캐쉬"를 주체를 못하는 우리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人情위주의 한국인 사회에서는 "캐쉬"를 가지고 있으면, 위에서 필자가 말한 이유로 돈이야 벌게 될련지는 모르지만, 친구고 친척이고 다 원수진다. 캐쉬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욕심많은 '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기 지극히 어려운 부동산같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 그나마 재산을 이러한 '예비원수'들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진득이 캐쉬를 쥐고 있다가, 좋은 물건을 헐값에 위해서 말한 '컨트레리안' 타이밍에 맞추어서 멋있게 낚아채는 것을 한국 분들 사이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도 무어라 해결할 방책을 제시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람 들이라고 싶어서 그랬겠는가? 없는 것을 어찌하랴? 그리고, 필자라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안그려고 베기겠는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살자. 無識은 죄악이지만, 가난은 죄악이 아니다. 그렇다! 가난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난은 죄악이 아니지만 가혹한 형벌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있지만 가난은 괴로와하여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 주지 말고, '守成이 創業보다 어렵다'며 약간은 전방진 품을 잡을 수 있도록 하여주자. 자! 우리 다음 소단락으로 넘어가자. <다음호에 계속>